



무선전자태그(RFID) 기술을 기반으로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전문기업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신제품(NEP)인증을 획득한 인사이드알에프(대표 장영철)가 주인공. 2004년 4월 창업한 이 회사는 RFID 태그 기술과 관련한 11건의 특허를 보유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한다.



우수 신제품 인증 받아

인사이드알에프는 U-클래스 시스템, 리버티 태그 시스템, 비저터 태그 시스템, DRM S/W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력제품인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지원 시스템(U-클래스 시스템)'은 유비쿼터스 무선통신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경희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개발됐다. 이 제품은 학생 책상위에 놓인 단말기에 학생증을 삽입하면 학생의 사진과 배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강의지원 시스템.

실시간 이해도 측정, 퀴즈, 질문예약, 웹서비스 등의 기능으로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향상은 물론 교수와 학생 간의 보다 인터랙티브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서울, 국제 캠퍼스),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전남대 의학전문대학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지원 시스템은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신제품(NEP)인증을 획득했다.

이같이 뛰어난 기술력은 이미 창업 초기부터 입증 받았다. 회사를 설립한 2004년에 놀이기구 예약 시스템(리버티 태그 시스템)을 개발해 '2004 대한민국 창업대전'에서 금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메이저 테마파크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기도 했다. 또 RF기술을 응용하여 비저터 태그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주요 건물 내 방문객의 위치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인사이드알에프의 핵심기술인 RFID, 무선통신기술, 무선측위기술 등이 적용됐다.

USN 전문기업을 꿈꾸며

장영철 대표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성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이유에서다. 창업 이전에 장 대표는 벤처기업 4곳에서 연구원, 개발팀장, SW 엔지니어로 일했다. 안타깝

게도 직장 운이 없었던 것일까. 장 대표는 몸담은 회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성공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목표와 각오로 자신이 직접 기업을 차리기에 이르른다. 그리고 인사이드 알에프는 각오만큼 탄탄한 기업 운영을 목표로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양방향 강의지원 시스템을 개발, RFID 관련 전문기업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S/W, H/W 개발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사이드알에프는 올해부터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 가장 주력하고 있다.

"올해 매출 목표는 20억 원으로 U-Class시스템이 12억 원, 응용제품 군에서 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알에프는 RFID 기술을 응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장차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전문기업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사이드알에프가 개발한 유비쿼터스 양방향 강의지원 시스템은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혁신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신제품(NEP)인증을 획득했다.

장영철 대표가 말하는 "경희대 창업보육센터"

창업초기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운영비 절감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 정책자금 관련 정보제공, 재무설계 등 다양한 지원 덕분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죠!